

표상으로써의 기하학적 모티브가 지닌 존재형식과 구조

The Form and Structure of Existence that is in a Geometrical Motif
as an Emblem

김 연 화

홍익대학교 대학원 강사

Kim, Youn Hwa

Graduate School of Hong Ik University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범위
- 1-2. 연구 방법 및 절차

2. 기하학적 조형의 형태 구조와 양상

- 2-1. 기하학적 모티브의 외형적 양식
- 2-2. 기하학적 모티브의 유형분석
 - 2-2-1. 파상문, 파문(Chevron Shape)
 - 2-2-2. 수직 수평문(Checked & Striped Shape)
 - 2-2-3. 격자, 빗살, 마름모형(Lattice Shape, Diapher Shape, Trillis Shape)
 - 2-2-4. 사각형(Square Shape)
 - 2-2-5. 원형(Circles Shape)
 - 2-2-6. 고리형 띠형(Strap Shape)
 - 2-2-7. 부채형(Fan Shape, Bow Shape, Floral Shape)
 - 2-2-8. 연결형(Interlocking Shape)
 - 2-2-9. 추상형(Abstract Shape)

3. 표상으로서의 기하학적 조형의 존재 양식

- 3-1. 이념과 형식으로서의 조형표상과 상징성
 - 3-1-1. 양식으로서의 조형성
 - 3-1-2. 상징성의 존재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조형작품의 모티브(Motif)는 형식과 의지에 의해 구성되는 상징과 표상이며 현상적 의미를 지닌 표현적 행동의 의식적 활동이다. 본 연구는 기하학적 모티브가 지닌 조형형식과 구조의 외형적 양식으로 재현된 의미가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형적 형상 연구에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한 접근 방법과 범위는 기하학적 상징과 추상적 재현의 대표적 작품 66점을 9개의 카테고리 별로 분석, 진단, 재해석 하였다.

논제에 대한 미적 가치 체계와 대상이 지닌 존재 방식의 상호 작용된 표현 소재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기술(記述)적, 상징적 개념을 지닌 양식으로서의 기하학적 모티브가 지닌 조형형식들은 직유, 은유, 환유에 의한 이념적 속성을 지닌 인위성으로서의 독특한 비재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기하학적 모티브, 현상적 의미, 미적가치, 환유

Abstract

A formative work's motif is its emblem and symbol that are formed by formal will, and is also a conscious activity that has its phenomenal meaning.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on on formative phenomenon to see how a meaning reproduced into an external style of formative form and structure that are in a geometrical motif is expressed. For this goal, this study is based on the approaching methods such as and in the range of analysis, diagnosis and retranslation by 9 categories of 66 work pieces that represent geometrical symbols and abstractive patterns.

For this study, I referred to the aesthetic value system on the theme and to a new possibility of the materials expressed under interaction of existence methods. I found especially that the formative forms of a geometrical motif as forms that have their symbolic concepts are with non-reproduced elements as artificiality that is with ideological attributes by technique, metaphor and metonymy.

**Keyword : Geometrical Motif , Phenomenon ,
Esthetic Value , Metonymy**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범위

조형예술은 보편적인 것에 대한 인간 본질의 표상으로 존재형상을 표현하고 그 형상은 객체화된 보편적 존재를 가지적으로 재현한다. 이것과 연관되는 조형의 형식과 구조는 대상(Object), 개념(Conception), 표현(Expression), 모티브(Motif), 그리드(Grid), 모듈(Module) 및 표현사고와 표현 방식, 제작과정에 따라 환유적, 전일적, 탈환원적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된 기하학적 모티브는 사적으로 기원전 8~9세기 앤티카(Attica)를 중심으로 그리스 미술에서 잉태되고 제 2차대전 시기의 추상주의 주류로 이동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용되어 나타나 있다. 또한 이에따라 다양한 장르와 유형에서 재현되고 있는 광범위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기하학이 소수와 직관적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인식하며 추론을 계속해 가는 기하학적 정신과 같은 맥락에서 그 의미와 존재를 체득시키기 위한 당위성으로 제고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연구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기하학적 모티브가 지닌 상징성과 형태구조 재해석
- 기하학적 모티브의 유형별 특성 분석
- 기하학적 모티브가 지닌 표상의 구조적 법칙과 형상성에 대한 개연성 확인

1-2. 연구 방법 및 절차

논제가 지닌 구성적, 개념적 문제점을 공식화하기 위한 표본으로 자료모집의 객관성(Objectivity) 유지를 위한 선행연구의 문헌조사 범위는 15권의 대표적 표현사례를 추출하였다. 분석을 위한 내용을 9개의 유형별 파상문, 파문(Chevron Shape), 수직 수평문(Checked & Striped Shape), 격자, 빗살, 마름모형(Lattice Shape, Diapher Shape, Trillis Shape), 사각형(Square Shape), 원형(Circles Shape), 고리형 띠형(Strap Shape), 부채형(Fan Shape, Bow Shape, Floral Shape), 연결형(Interlocking Shape), 추상형(Abstract Shape)으로 구분하여 관계를 설정하고 패턴화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분석 및 탐색 단계에서는 모티브가 지닌 속성과 본질을 재해석하고 구조적 형상적 양상이 지닌 의미와 배경을 재설정하였다.

또한, 구성양식의 재현성에 대한 요소 추출 및 결정을 위하여 유형별로 추출 대상의 기본 요소에 대한 원인과 구조를 해명하기 위한 비교 판별을 실행하였다.

결국 이러한 전개 과정을 통해 조형 표상이 지닌 보편적 해(解)의 도출에 나타난 사실(Facts)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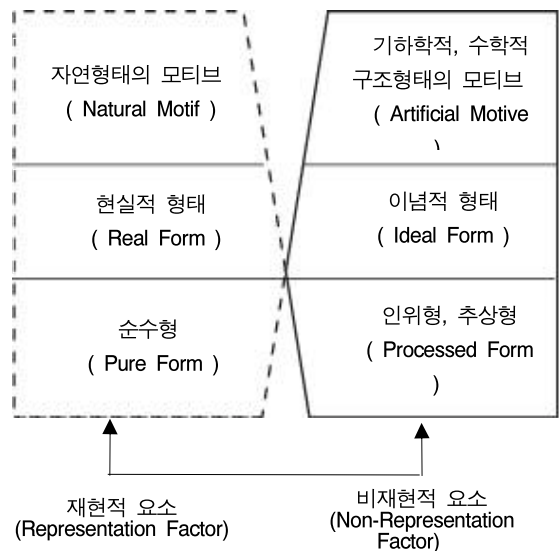
2. 기하학적 조형의 형태 구조와 양상

2-1. 기하학적 모티브의 외형적 양식

조형작품의 인위적, 추상적인 양식은 과학적 시각을 동반한 다층적인 연쇄감각으로 재현가능의 조형언어와 함께 개념적 조형이다. 모티브(Motif)가 지닌 조형 표현의 의도가 유발되는 소재로서의 표현, 장식의 수단, 상징, 기호들의 순수와 암시의 정제된 개념과 속성을 체득하여야 한다.

기하학적 모티브는 산술적으로 조형된 수학적 형태로서 중세에 이르러 자연의 동·식물 모방이 우세하여 약화될 때까지 원시시대부터 지속적으로 등장된 이념적 형태이다.

더욱이 현대적 단순성과 맥락을 함께하며 과학적, 합목적적, 합구조적, 기술적인 것이 특징을 지니므로 대량생산의 등장과 더불어 그 가능성이



[그림 1] 순수성과 인위성 모티브의 요소 부분

확대되고 있다.

<그림 1>에서는 기하학적 모티브가 지닌 요소와 장식적 모티브가 지닌 요소를 구조적 특성으로 비교한 것으로 기하학적 모티브는 대상의 비재현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비자발적의 추상형이며 추론에 의한 고유의 형·형태 (Inherent Shape Form)를 지닌다. 즉, 인위형 (Processed Form)으로 실용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를 현실적 형태로 구현함으로 그 내용(정신)의 외적 표현은 직관적인 간결성과 탈구조성, 영원성을 지닌 양상으로 인지하게 된다.

2-2. 기하학적 모티브의 유형 분석

2-2-1. 파상문, 파문(Chevron Shape)

파상문의 모티브는 파도형 이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갈지자 무늬에 웨브론(Chevron)형태라 칭한다. 이러한 모티브는 수직, 수평형의 줄무늬와 함께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주제이다.

[표 1] 파상문, 파문(Chevron Shape) 모티브

유형 구분	모티브의 내용
아즈텍과 잉카	
	
	
한국 (조선 조 시대)	

(출처 : Smithsonian Institution(1996), American Indian, National Geographic, Washington, p.109,130, Owen Jones(2001), The grammar of Ornament, The Ivy Press,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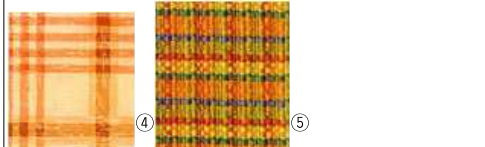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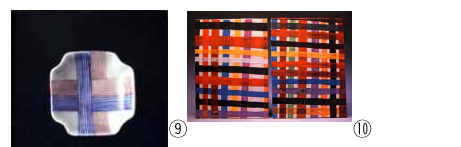

계 문양의 역사, 다빈치, p.71, Judith Miller(1998), The Style sourcebook, Stewart, Tabori & Chang, NY, p.169, Elizabeth Kennedy Gische(2004),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National Geographic, 하동화(2004), 이렇게 예쁜 보자기, 한국자수박물관, p.231, 임양목(2003), 사찰 꽃살문, 삼성문화인쇄, p.167 (①~⑨))

특히 인도네시아에는 이캣(ikats)이라고 칭하며 어메리칸 인디아에서는 줄무늬 바둑판 형태인 징함스(Ginghams)로 그린 ②③④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미의 아즈텍(Aztec)과 잉카(Inc) 문명의 생활 기기에서는 ①⑥⑦과 같은 도해법(Iconography)의 패턴과 같은 기학적 추상형으로 등장되고 있다.

2-2-2. 수직 수평문(Checked & Striped Shape)

[표 2] 수직 수평문(Checked & Striped Shape)

유형 구분	모티브의 내용
아즈텍과 잉카	
	
	
일본	
한국 (조선 조 시대)	

(출처 : Judith Miller(1998), The Style sourcebook, Stewart, Tabori & Chang, NY, p.157,162,166,170,171,265,344,

山藤章二(2010), Mamezara, Super Edition S.A.R.L. p.344,
 하동화(2004), 이렇게 예쁜 보자기, 한국자수박물관, p.211,217,
 김연화(2009), 현대도예의 미니멀리즘 경향과 탈환원 구조,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p.30 (①~⑫)

격자구조에 의한 줄무늬(Vertical & Horizontal Shapes)형태는 유럽의 경우 르네상스 시대부터 20세기까지 즐겨 사용된 모티브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표현되어온 기하학적 패턴이다.

한국의 경우 마름모꼴(능형)과 함께 전통적인 실내 가옥과 사찰건축 (<표 3>의 ⑩ - 띠살과 빗살문으로 이루어진 범어사 나한전 어간)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모티브이며 신조형주의의 이론적 태동에 기여한 몬드리안 작품의 수직 수평형 구도는 뉴욕의 브로드웨이를 기하학적 속성으로 재현한 대표적 작품이다.

2-2-3. 격자, 빗살, 마름모형(Lattice Shape, Diapher Shape, Trillis Shape)

[표 3] 격자, 마름모형(Lattice Shape, Diapher Shape, Trillis Shape)

유형 구분	모티브의 내용
유럽, 미국	
한국 (조선 조 시대)	

(출처 : Judith Miller(1998), The Style sourcebook, Stewart, Tabori & Chang, NY, p.163,341,342, 하동화(2004), 이렇게 예쁜 보자기, 한국자수박물관, p.275,279,280, 임양목(2003), 사찰 꽃살문, 삼성문화인쇄, p.194 (①~⑩), Yumiko Kobayashi, Ryo Watanabe(1995), New York detail, Chronicle books, San Francisco, p.123)

격자, 마름모형은 능형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18세기 로코코(Rococo) 및 실내에서 많이 이용된 모티브이며 19세기에 이르러 영국의 지방에서도 일반화된 패턴이다. <그림3>의 사례에서 제시된 한국의 보자기 조형에서와 같이 진동, 회전을 의미하는 트릴리스(Trillis) 격자(Lattice)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마름모꼴 형태의 구조가 특징이다.

2-2-4. 사각형(Square Shape)

사각형, 즉 정방형은 삼각형, 원형과 함께 형태에 기본이 되는 구조로서 수학적인 형상의 기본이 된다. 형태의 기본은 삼각형이지만, 정 사각형의 구조는 전우좌우에의 확산과 수렴 및 적층이 가능한 형태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평면적, 입체적, 공간적 분야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모티브이다.

[표 4] 사각형(Square Shape)

유형 구분	모티브의 내용
유럽	
한국 (조선 조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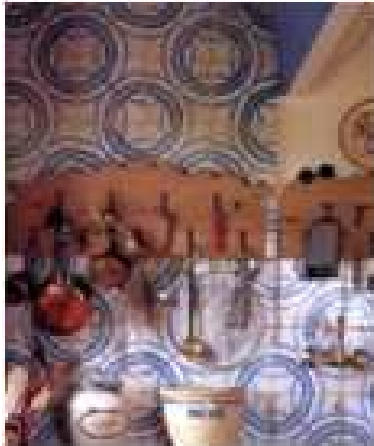
(출처 : Judith Miller(1998), The Style sourcebook, Stewart, Tabori & Chang, NY, p.171,346,347, 하동화(2004), 이렇게 예쁜 보자기, 한국자수박물관, p.210,227 (①~⑦))

2-2-5. 원형(Circles Shape)

원형의 경우 단독으로 표현된 사례와 함께 중첩(Overlapping)된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에 의한 구조는 형태간의 상호관계의 속성에 따라 분리, 접근, 중첩, 침투, 통합, 공제, 교차의 다양한 특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의 패턴

에서도 자주 등장되는 모티브로서, <표 5> 에서처럼 한국의 사찰문에 나타난 구형은 실제적으로 국화, 모란, 찰레 등의 회화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원이 중첩된 구체(Sphere)의 경우 규칙적이거나 반복적인 직접(쌓기)과 불규칙적인 집적에 의해 다양한 기하학적 조형이 표현될 수 있고, 이러한 대상은 생명체나 극미의 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림 2]
18세기
스페인
주방의
기하학적
타일

(출처 : Judith Miller(1998), The Style sourcebook, Stewart, Tabori & Chang, NY, p.340)

[표 5] 원형(Circles Shape)

유형 구분	모티브의 내용	
유럽, 미국		
일본		
한국 (조선 조 시대)		

(출처 : Charlotte, Peter Fiell(2000), Industrial Design A-Z,

Taschen, p.154, A.Crueger, W.Crueger, Saeko Ito(2004), Modern Japanese ceramics, Lark books, N. Y, p.82, Judith Miller(1998), The Style sourcebook, Stewart, Tabori & Chang, NY, p.344, Charlotte, Peter Fiell(1999), Design of the 20th Century, Taschen, p.750, 山藤章二(2010), Mamezara, Super Edition S.A.R.L., p.314, 임양목(2003), 사찰 꽃살문, 삼성문화인쇄, p.166 (①~⑥)

2-2-6. 고리형 띠형(Strap Shape)

고리, 띠, 가죽끈 모양의 모티브는 스페인의 무어(Moorish) 시대에 주로 표현된 기하학적 형태로 알람브라궁전의 장식에서는 로마의 기하학적 패턴의 조합이 상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다양한 문명과 문화의 영향으로 시대를 초월한 장식미술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원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으며, 무어인들은 이를 더욱 보편화시키고 충실하게 이행하였다(Owen Jones, 2001).

[표 6] 고리형 띠형(Strap Shape)

유형 구분	모티브의 내용
유럽	

(출처 : Judith Miller(1998), The Style sourcebook, Stewart, Tabori & Chang, NY, p.341,169 (①~③))

2-2-7. 부채형(Fan Shape, Bow Shape, Floral Shape)

부채형은 아르데코(Art Deco) 스타일의 패턴으로 부채꽃 형태 또는 리본보우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형의 추상적 형상을 지니기도 한다. 뉴욕 맨하탄에 주요 건물의 경우 이와 같은 형상들을 장식적인 요소로 자주 접할 수 있고, 이는 건축물의 디자인이 아르데코의 영향에 기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티브에서는 지그재그(Zig-Zag)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게 된다.

[표 7] 부채형(Fan Shape, Bow Shape, Floral

Shape)

유형 구분	모티브의 내용
유럽, 미국	
	
	
	

(출처 : Judith Miller(1998), The Style sourcebook, Stewart, Tabori & Chang, NY, p.347, Volker Fischer(1989), Design Now, Prestel, Germany, p.92, Yumiko Kobayashi, Ryo Watanabe(1995), New York detail, Chronicle books, San Francisco, p.35,46 (①~⑤))


2-2-8. 연결형(Interlocking Shape)

직선과 사선형 및 기본형으로 이루어지는 연결형의 경우는 시각적으로 일루전(Illusion) 효과를 주게 되며 맞물리는 형상의 특징으로 인해 연결형의 시각적인 효과를 주게 된다.

이러한 형태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아르데코 건축물 뿐만 아니라 1950~1960년대의 팝아트(Pop Art)의 출현과 함께 대중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 8 > 연결형(Interlocking Shape)

유형 구분	모티브의 내용
유럽,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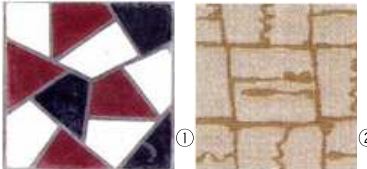


한국 (조선 조 시대)	
--------------	------------------------------------------------------------------------------------

(출처 : Judith Miller(1998), The Style sourcebook, Stewart, Tabori & Chang, NY, p.341,347, Yumiko Kobayashi, Ryo Watanabe(1995), New York detail, Chronicle books, San Francisco, p.47, 하동화(2004), 이렇게 예쁜 보자기, 한국자수박물관, p.257,260 (①~⑦))

2-2-9. 추상형(Abstract Shape)

추상적 개념들은 다양한 상징성의 증거나 조짐을 나타내므로 그 감상자는 상징안의 유사성이 있는 구체적 정신을 끌어내어 연상하게 하고, 독립적인 조형성을 존재하게 하는 다층적 구조를 확인시킨다.

[표 9] 추상형(Abstract Shape)

유형 구분	모티브의 내용
유럽	
	
일본	
한국 (조선 조 시대)	

(출처 : Judith Miller(1998), The Style sourcebook, Stewart, Tabori & Chang, NY, p.172,346, Charlotte, Peter Fiell(1999), Design of the 20th Century, Taschen, p.585, 山藤

章二(2010), Mamezara, Super Edition S.A.R.L., p.224, 하동화 (2004), 이렇게 예쁜 보자기, 한국자수박물관, p.169,198,267 (①~⑦)

3. 표상으로서의 기하학적 조형의 존재 양식

3-1. 이념과 형식으로서의 조형표상과 상징성

표상이란 여러 가지 조형 요소를 사용하여 형태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 질서이며 구성이고 형태에 대한 형식과 작업을 의미한다. 창조적 조형 표상을 형성하는 구조학으로서의 조형 예술은 새로운 시각형식에 대한 가능성의 탐구이므로 형식적 특성의 모티브가 대두된다.

기본형으로서의 기하학적 조형에 대하여 스위스의 조형 예술과 막스 빌(Max Bill)은 이러한 감각을 수학적 개념과 형태로 이해하였고, 파스칼(Pascal)은 "기하학적 정신이란 수학 및 수학적 자연과학의 원리를 연구하기 위해 작용하는 시각을 동반한 정신과 같이 하나의 직관으로부터 출발하여 긴 추론의 연상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주장했다(신권희, 한석우 1986, p.99).

조형작품이 지닌 표상은 조형대상이 지니고 있는 공간의 제 2요소와 함께 구성과 구조의 직유(Simile), 은유(Metaphor) 및 환유(Metonymy)의 관계로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가에 대한 존재의 양식에서부터 기인된다. 그러므로 조형 표상은 그 대상에 대하여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질서를 형성함으로써 통일, 통합되어지는 체계와 관계되어 대상의 물체가 지닌 이념적, 실체적 본질에 대한 시각적 지각 대상의 외형적 양식과 태도, 윤곽, 상징적 특성을 직관적 형상으로 이해 하여야 한다.

기호학과 의미론적 측면에서는 양식적인 특징을 도상학(Semeciotiket) 래퍼토리등이 내포된 기의의 층위로 미적 메시지의 정보 층위를 분류하고 있다 라고 논했다(곽대명, 김명주, 송창호, 이재용, 정충모 2004, p.137).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공간 한정선은 점, 선, 면, 입체, 공간을 포용하여 공간과 시각요소에 대한 내적 상황을 포함한다.

기하학적 모티브가 지닌 조형표상에 대한 내용은 지역적 특성, 문화적, 생활적 반영이며 비논리적, 비논리성으로 직접적인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형 표상은 조형 창작의 근본작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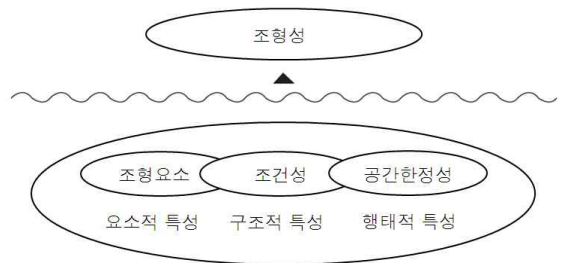
작가의 감정이 표출, 산출 된 것으로 새로운 시각 형식에 대한 가능성의 탐구이며, 지각되는 형상으로 인지시켜주게 된다.

3-1-1. 양식으로서의 조형성

양식은 예술적 표현으로 유포, 태도, 문화적 징후(Fad)에서부터 문명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조형적 장면(Scene)을 창출 하였다.

기하학적 모티브의 조형 양식은 구조(Configuration), 구축 및 조형을 성립시키는 다양한 요소(시각요소, 개념요소, 공간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 양식은 미적 가치 체계를 뜻하며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대상에 대한 형식들과 상호작용으로 구현되어 유형적 분화에 대한 기술과 가치 및 의미 개념으로 다원화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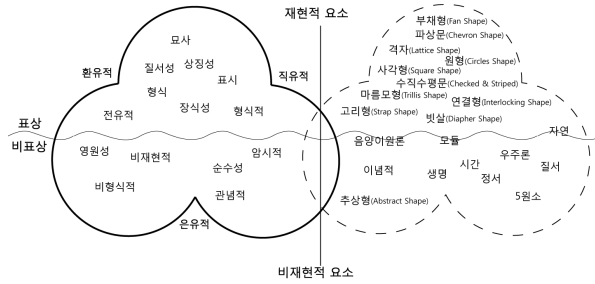
[그림3] 기하학적 양식이 지닌 조형성의 규범

구체적으로 기하학적 대상이 지닌 조형성은 위와 같이 다원론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시지각적 표현의 의미를 논변적 절차를 생략하고 규칙적인 형상의 흐름의 조건으로 공간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수학적 법칙과 함께 생성된 기하학적 조형 구조는 인간의 이지적인 사고체계에 의하여 끝없이 탄생되었고, 이것이 갖는 공간은 일정법칙에 근거해서 한정되었으므로, 조형적 평형감각의 관계를 지니게 된다.

3-1-2. 상징성의 존재

기하학적 형태의 모티브가 지니고 있는 조형적 표상 분석을 통해 조형예술의 이념적 상징적 속성과 형식을 실체적으로 재조명하여야 한다. 상징은 외관(Semblance) 속에 이미지로서 성립하는 관념적 대상이며, 대상의 원형이 구속됨이 없이 상투적으로 만들어지는 광의의 추상형태이다.

그러므로 감정적 의미 또는 의미로서의 감정이 지닌 간접적 표시, 상징, 지시(Denotation) 또는 감각적인 형성(Picture Pattern)으로 구현되는 은유성을 지닌다. 또한, 기하학적 조형성이 지닌 상징성은 구성하는 각 감각요소 사이에서 일정관계를 가지며 동시에 조형이 지닌 구조관계의 틀에 의해서 직유적, 은유적, 환유적인 속성과 수단으로 대상을 재현시킨다.



[그림 4] 기하학적 모티브의 존재 양식이 지닌 이념과 형식

이와 같이, 기하형태가 지니는 고유의 동인(Motif)은 본 연구의 논제가 지니고 있는 미학적 가치로서의 상징, 존재, 형식과 시각적 의미로서의 표상연구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기하학적 모티브의 조형적 상징성은 가시적으로 재현된 존재로써 구체적인 형상에 대한 암시이며 내재된 묘사, 증거, 의미가 된다.

4. 결론

조형에 나타난 자연적인 모티브는 일정불변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대립하는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변화하고 운동하므로 그 형태는 항상 상대적이며 대립물의 상호작용과 통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체와 현상이 생긴다.

<그림 4>에서처럼 표상으로서의 기하학적 모티브는 자연형과 비유되는 도식적 표현 수단으로 역사적, 양식적, 조형적 전개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 이념과 형식의 구조로 실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형 대상의 비재현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추상 형태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재현의 미적 가치 체계의 규범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기하학적 조형의 모티브는 착상으로부터 잉태되어 결과로써 산출되는 최종 조형 작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포용하는 것으로써 형상적으로는 다양한

양식과 패턴으로 구현되는 차별성을 지니게 된다. 표상으로 전개된 조형 작품의 형식은 예술혼(Esprit)으로 구현되는 작품의 내면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라고 주장하였다(김연화 2011, 재인용).

따라서 기하학적 모티브가 지닌 조형의 특성이 직관으로 출발해서 추론의 연상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구체적인 발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하학적 추상의 예술적 형식은 비물질적인 수열적, 대칭적, 정형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어 반복적(Tautology) 구조로 환원하여 차별화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위계성과 비결정성의 조화적 의미로 전일적인 화합을 지니고 있다.

둘째, 이에 반해 자연적 모티브는 역동적, 유기적, 객체적, 물질적인 형식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하학적 조형은 표상과 비표상적 속성에 대하여 직유적, 환원적으로 넘나드는 특징을 갖게 된다.

셋째, 기하학적 모티브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의 간결함속에 함축된 전유적, 형식적, 관념적, 의미들은 조형의 미적표현에 이르는 방향만을 제시하는 표현 수단뿐만 아니라 조형적 고유성을 지닌 표상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 곽대명, 김명주, 송창호, 이재용, 정충모.(2004). '미학적 해석의 산업디자인론', 대우출판사, 137.
- 김연화.(2009). 현대도예의 미니멀리즘 경향과 탈환원 구조,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30.
- 김연화.(2011.02). Design Forum Vol.30, 한국디자인 트렌드 학회, 나선형이 지닌 조형의 구조적 법칙성과 형상특성. 83~92.
- 신권희, 한석우.(1986). '조형연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99.
- 임양목.(2003). '사찰 꽃살문', 삼성문화인쇄. 166-169, 194, 198, 211, 217, 269.
- 하동화.(2004). '이렇게 예쁜 보자기', 한국자수박물관. 210, 227, 231, 257, 260, 275, 279, 280.
- A.Crueger, W.Crueger, Saeko Ito.(2004). *Modern Japanese ceramics*, Lark books, N.Y. 82.
- Charlotte, Peter Fiell.(1999). *Design of the 20th Century*, Taschen. 586.
- Charlotte, Peter Fiell.(2000). *Industrial Design A-Z*, Taschen. 154.
- Elizabeth Kennedy Gische.(2004).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National Geographic, 109, 130.
- Judith Miller.(1998). *The Style sourcebook*, Stewart, Tabori & Chang, NY. 157, 162, 163, 166, 169, 171, 172, 210, 227, 265, 275, 279, 280, 340-342, 344.
- Owen Jones.(2001). *The grammar of Ornament*, The Ivy Press, *세계 문양의 역사*, 다빈치. 71.
- Smithsonian Institution.(1996). *American Indian*, *National Geographic*, Washington, 109-130.
- Yumiko Kobayashi, Ryo Watanabe.(1995). *New York detail*, Chronicle books, San Francisco, 35, 46, 47, 123.
- Volker Fischer(1989), *Design Now*, Prestel, Germany, 92.
- 山藤章二.(2010). *Mamezara*, Super Edition S.A.R.L., 314, 324, 344.